

社會進步와 福祉에 관한 J. S. Mill의 思想

張 五 鉉*

< 目 次 >

- I. 問題의 提起
- II. 時代的 背景과 問題意識
- III. 經濟思想體系
- IV. 政治經濟學 原理
- V. 社會進步와 所得分配
- VI. 社會進步와 公共政策
- VII. 社會進步와 人類의 將來
- VIII. 結 論

I. 問題의 提起

Mill은 그의 저작 중 『政治經濟學原理』의 집필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경제학 원리의 집필 목적이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는데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이론을 재구성하여 영국경제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선구할 수 있는 보편적인 原理를 모색하고 이러한 원리를 사회의 개혁과 진보에 적용하는데 있다. 그런데 그는 사회현상 중 순수한 經濟法則이 지배하는 현상마저도 이러한 현상을 포괄하는 시대정신과 유리되어 나타날 수 없으며, 따라서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새로운 사고에 입각하여 접근할 때만이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았다.¹⁾ 환언하면 그가 의도했던 바는 고전적 自由經濟理論의 진일보로 인식했던 Ricardo와 Malthus 등의 이론을 시대정신에 부합되도록 재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새시대의 과제해결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 기저에는 분명히 A. Smith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시도

* 東國大學校 經濟學科

1) J.S.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with Some of Their Applications to Social Philosophy, edited by V.W. Bladen and J.M. Robson, pp. XC and XCii.

한 고전이론의 부분적 재구성은 결과적으로 이론 그 자체의 본질을 상당히 변모시켰으며 이는 다시 그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의 규범과 비전을 선구하는 기본원리로 나타났다.

그러면 그가 『政治經濟學原理』를 통해 고심한 핵심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政治的 自由와 經濟的 平等을 어떻게 조화하느냐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이는 사회진보와 인류복지의 향상을 위한 기본질서의 창출에 관한 것으로 오늘날에도 고심의 대상인 시장과 정부간의 분업과 협업의 과제이기도 하다. 환언하면 어떻게 하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다수의 횡포와 계급 위주의 분파적 입법을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가? 政治的 平等과 經濟的 機會均等を 담보할 수 있는 사회규범과 그 구성원리 및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과제들이 그가 평생동안 고뇌한 대상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그의 『정치경제학원리』가 출간된지 한 세기 반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도 여전히 미결의 과제로 남아 있음에 비추어볼 때, 그의 문제의식과 사회진보사상을 조명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英國 産業革命의 성숙기와 정치 및 사회적 격동기를 살았던 그가 당면했던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모색했던 사회구성의 원리와 그 대안, 시대정신, 그리고 구질서의 재편을 통해 새로운 질서의 확립을 가능케 했던 사회적 배경과 그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은 그가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사회규범과 이를 반영하는 사회구성 및 실천의 원리가 무엇이냐의 관점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政治經濟學原理』에 담긴 그의 경제개혁사상은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대단히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사상체계의 한 부분이며, 따라서 그의 경제사상도 이러한 다면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의 사상체계는 영국의 고전적자유주의 전통과 公利主義, 독일의 理想主義와 불란서의 理性主義, 그리고 Tocqueville의 자유주의사상을 융합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사상체계는 한 논문으로서 다룰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본고는 그의 사상체계 중 『정치경제학원리』에 함축된 경제개혁사상의 고찰에 국한하며, 이를 통해 향후 우리 국민경제의 진로모색에 도움이 될 만한 시사를 얻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II. 時代的 背景과 問題意識

J.S. Mill은 빅토리아여왕 시대의 전 중반기를 살았다. 그 당시 영국은 나폴레옹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기로 접어들면서 국내적으로 급속한 産業革命의 진전과 민주화의 격동기를 거쳐 근대시민사회로 성숙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경제적인 번영을 전세계에 과시하였다. 이 기간동안 영국은 부르조아적 自由主義傳統이 市民的 自由主義로 대체되는 과정이었다. 이와 같은 전환기에서 그는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산업화와 민주화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또한 지나친 개혁이 가져오는 위험을 경고하는 등 世論을 선도함으로써 영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한 문명의 진보를 이룩하는데 공헌한 대표적인 사상가이다.

그러면 이러한 그의 문제의식과 개혁사상의 태동을 가져온 배경은 어떠한 것인가? 먼저 대외적 배경을 보면, 밀의 『政治經濟學原理』가 출간된 1848년 프랑스에서는 2월 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탄생하였으며, 또한 Marx와 Engels가 집필한 『공산당 선언』의 발표를 계기로 가일층 고조된 구체제에 대한 개혁요구와 이에 대한 반동이 유럽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대내적으로 Mill의 시대는 구시대의 유산인 대지주들의 세습적 귀족정치와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해 반기를 들고 경제개혁을 주도하는 자유주의의 입지가 강화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부분적인 자유방임질서의 추구로 파생된 사회문제의 적절을 위해 현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주장하는 社會主義思想이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상을 가장 극명하게 반영했던 사례가 바로 곡물법 및 구빈법을 둘러 싸고 전개된 논쟁과 차티스트운동 등이었다.²⁾

곡물법논쟁은 수구적 봉건지주세력과 신흥상공세력이 자유무역을 놓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충돌한 것이었으며, 혹독한 노역과 극심한 빈부격차, 그리고 지배계급의 비행과 불의 등 社會惡의 만연을 배경으로 세력을 규합한 社會主義者들이 빈민구호에 관한 정부개입을 놓고 자유주의자들과 대립한 것이 구빈법논쟁이었다. 뿐만 아니라 1832년의 선거법개정에서 참정권 획득에 실패한 노동자계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의 권익을 의회에 반영코자 전개한 움직임이 차티스트운동이었다. 차티스트운동은 사회주의자들의 호응하에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産業資本家들은 그들 스스로의

2) 金宗炫, 『近代經濟史』, 經文社, 1984, pp. 73~77.

이익증진을 위해서도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정치적 지위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같이 Mill의 시대상은 곡물법과 구빈법, 그리고 참정권 확대를 둘러싸고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간에 대립이 첨예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자본가와 노동계급간에 대립과 반목의 심화로 특징지워졌다. Mill은 이러한 사상의 갈등과 충돌의 저변에는 무엇보다도 그 당시의 경제현안, 특히 所得分配의 不均衡과 이와 관련한 자유방임적 경제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자리잡고 있었음을 간파하였다.³⁾ 한 마디로 Mill이 확인한 것은 영국에 있어서 私有財産制度를 근간으로 했던 당시의 소득분배는 생산의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력에 반비례하고 있었으며,⁴⁾ 이는 스스로가 지향하는 公利主義의 규범에 역행한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선을 선구할 수 있는 사상과 기본원칙의 정립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즉 無階級의 시민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원리와 공리주의의 규범을 재구성함으로써 향후 영국사회의 기본질서 개혁에 공헌하는 것을 자신의 역사적 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1832년 선거법 개정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참정권 확대와 의회제도의 개혁, 단결금지법 폐지, 공장법과 보통교육법의 제정을 통한 民主化의 촉진과 私有財産制度를 포함한 분배질서 개혁을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강화 등 사회기본질서의 개혁은 Mill이 평생동안 고뇌한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것이다. 영국은 이러한 기본질서의 개혁을 통한 개인의 자유신장과 경제적 번영을 통해 勞動階級을 社會 進步의 동반자로 수용함으로써 사회계급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所得과 富의 분배 개선을 통해 전국민의 복지개선과 사회진보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물론 영국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질서의 개혁은 순조롭고 평탄하게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혁은 기존 관습과 질서의 전면적 붕괴와 새로운 규범의 창출 및 대체를 의미함으로써 기존의 권위와 사회계급간의 충돌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시민혁명과 경제질서의 개혁이 평화리에 수행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대

3) Stephen, *The English Utilitarians*, Vol. 3, 1900, *Reprints of Economic Classics*. New York : Augustus M. Kelley, 1968, pp. 158~159.

4)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p. 207.

체로 영국의 自由主義의 전통에 기인하였다. 명예혁명과 청교도혁명의 전통을 이어 받고 산업혁명의 성숙단계로 접어든 영국의 古典的 自由主義는 유럽대륙 국가들의 그것과는 달리 신흥유산계급 위주의 부르조아적 자유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자까지를 포함한 국민적 신조로 보편화되었다. 바로 이러한 시민적 자유주의의 신조 때문에 1832년 선거법 개정 이후 차티즘으로 상징되었던 영국의 노동운동이 유혈혁명으로 치닫지 않고 사회전반에 걸친 기본질서의 개혁이 대체로 자율적이고도 평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Mill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위해 영국의 古典的 自由主義를 정치에 있어서는 市民的 自由主義, 경제에 있어서는 積極的 自由主義로 승화시킨 시대의 주역 중 한 사람으로서 영국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평생을 바친 독특한 사상가이다.

무릇 어느 사회의 대변혁에 있어서도 그러하듯이, 영국사회의 經濟的 繁榮과 政治的 民主化도 그것을 선도하는 이론이 필요했다. Mill은 영국사회의 개혁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미래사회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영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을 향유할 수 있는 無階級的의 이상사회를 상정하고 이러한 사회의 구현을 위한 규범과 구성원리 그리고 실천대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이러한 이상사회의 규범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원리⁵⁾에서 찾았으며 최대다수에 노동자계급과 여성까지를 포함함으로써 Bentham류의 소수 유산계급 위주의 자유주의를 다수의 市民的 自由主義로 승화시키고 이를 제도화하는데 세론을 지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사회 구성의 기본질서로서 政治的 自由主義와 經濟的 自由主義를 수용하였으며 이를 위하여서는 기존의 자유방임적 경제질서의 부분적 수정, 즉 정부개입의 부분적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하여 그는 정치분야에 있어서는 귀족의 세습적 과두정치에 의해 지배되어 왔던 의회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⁶⁾ 이는 주기적인 선거에 의해 구성된 의회가 정부의 선택 또는 거부권을 가짐으로써 개인과 사회전체의 공동이익 추구를 제도화하여 계급갈등을 해소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보통선거권을 지지하되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選舉權의 확대는 점진적으로

5) Mill, 『功利主義論』, 李淳容·權泰一(共譯), 1972.

6) Mill, 『代議政治論』, 李淳容·權泰一(共譯), 1972.

접근하면서 무지하고 교육받지 못한 노동계급의 개명과 자조정신의 함양을 위해 보통교육제도의 도입을 제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自由民主主義의 정착은 무계급 시민사회의 구현을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며, 모든 사회구성원의 經濟的 繁榮과 平等이 수반되지 않는 한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계급갈등의 해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Mill은 사회구성의 또다른 원리로서 경제질서의 개혁을 뒷받침할 이론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종래 자연법칙으로 신봉되어 왔던 經濟法則을 生産法則과 分配法則으로 이원화하였으며, 分配法則은 사회규범에 따라 다소의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 경제이론의 수정은 그가 종래의 이론에 대한 완전한 거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기업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인류는 중상주의와 봉건시대의 참상으로 회귀할런지도 모르며, 또한 私有財産制度는 사회 진보의 혜택을 가장 효과적으로 확산하는 초석이며, 따라서 私有財産制度의 거부가 아닌 개선을 통해 사회진보를 추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재산권제도의 개선은 法治主義에 입각하여 모색되어야 하며, 여기에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⁷⁾

그러면 경제질서의 改革을 선도하는 이론인 『政治經濟學原理』는 그의 생애와 사상발전단계중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가? 그것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Mill의 생애를 통한 사상편력과 그 발전단계를 개관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문제의식과 사상이 대체로 3단계를 거쳐서 발전, 승화되었다고 밝혔다.⁸⁾ 제1기는 유년 및 소년기의 영재교육을 통해 功利主義 사도로서 성장한 시기인 반면, 제2기는 20세 전후 그가 체험한 정신적 방황기와 낭만적 반동기로서 은사인 Bentham과 아버지로부터 습득한 주지주의적·몰감정적 합리주의를 자신의 사상으로 정립하는 과정이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그는 사회구성원 중 최대다수인 노동자계급의 최대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7) Schapiro, "John Stuart Mill, Pioneer of Democratic Liberalism in England,"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 4, April 1943, pp. 127~60, also in John Cunningham Wood(ed), *John Stuart Mill: Critical Assessments*, London: Croom Helm, 1987, vol. 1, pp. 78~103.

8) Mill, *Autobiography of John Stuart Mill*, with a Preface by John Jacob Cos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24, 1944. 이후에는 *Autobiography*라고 씀.

헌신하는 것이 곧 진정한 자신의 행복임을 확인하게 된다. 즉 자신의 행복추구가 인생의 목표이지만 그것을 직접적인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추구하는 것, 환언하면 노동자의 행복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음을 자각하였다.⁹⁾

제3기는 정신적 방황기이후 교제해온 Harriet Taylor와 결혼하여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를 포함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제2기중 그가 Bentham주의에 대해 가졌던 반동에 대한 두번째의 반동기로서 다시 Bentham주의에 기울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그가 원숙기인 제3기에 들어 제1기의 벤담주의자로 복귀하였다고 하나, 제3기에 있어서도 그가 제2기중에 받아들인 이상주의의 경향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그의 사상변화는 생애의 단계별로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그의 사상변천과정에서 『政治經濟學原理』의 위치를 정립하기 위하여 그의 사상변천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사상발전단계 중 제1기를 일관하는 근본원리는 Bentham의 自由放任思想이었다. 그 다음 사상편력의 제2기에 있어서 그는 경제사상에 관한 개인의 자유에 대하여 상당한 예외를 인정하고 社會主義에로 기우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저작이 1848년 출간한 『政治經濟學原理』이다. 그러면 제2기에 있어서 그의 경제사상이 적극적 자유주의로 기울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제2기에 있어서 그는 유럽대륙을 풍미하던 불란서의 理性主義와 독일의 理想主義에 접함으로써 소극적 자유방임사상과 富의 세습 등 私有財産制度의 문제점을 터득하였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社會主義의 도입 가능성을 연구하게 되었다. 경제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대안을 반영한 대표적인 저작이 『政治經濟學原理』이다. 이 저작은 Comte의 영향을 받아 역사를 보는 시각과 사회현상을 접근하는 實證主義의 방법론 및 이타심의 의의와 실현대안 등이 함축되어 있다. 『政治經濟學原理』의 부제인 ‘사회사상중 약간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가 이러한 그의 경제사상을 극명하게 표출하고 있다.

9) *Autobiography*, p.100.

III. 經濟思想體系

1848년에 출간된 『政治經濟學原理』는 약 반세기 후 Marshall의 『經濟學原論』이 출현할 때까지 경제학분야의 교과서로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렸다. 이 저작에서 그는 부의 추구하고 관련된 인간의 행위로부터 연역한 추상적 이론은 물론 경쟁을 제한하는 관습과 제도의 경직성 등 비경제적 변수의 영향, 임금 인상정책의 유효성 여부와 銀行發券制度의 효과, 그리고 自由貿易의 利益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경제발전을 문명사회의 진보란 맥락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그는 經濟學 體系를 生産, 分配, 그리고 交換理論으로 구성되는 靜學模型과 사회진보가 생산 및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動學模型으로 대별하였다.

동학모형은 Mill의 경제개혁사상과 이의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을 담고 있다. 그는 동학모형에서 인구증가, 자본축적, 그리고 생산기술의 발전 등 사회진보가 경제성장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경제성장의 촉진과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정한 분업의 조정자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또한 문명사회의 진보가 최종상태에 도달한다면 그러한 정상상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과 부합되는지의 여부와 문명사회가 이러한 정상상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행위와 사회제도가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원리와 정책대안이 무엇인가를 밝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모든 고전경제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사회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학자들 중 Mill은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학분야의 연구에 시간과 정력을 그렇게 많이 할애한 학자는 아니었다. 그는 그 이유를 『政治經濟學原理』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현실문제의 해결이란 관점에서 볼 때 政治經濟學은 여타분야의 사회사상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다. 사소한 세부문제를 제외하면 사회현상중 심지어 순수한 경제법칙이 지배하는 현상마저도 실제에 있어서는 오직 經濟原理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¹⁰⁾

물론 Mill 자신도 사회의 복지증진에 있어서 경제학의 공헌을 과소평가하지

10)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p. 91.

는 않았다. 그러나 순수 경제학적 접근만으로서 모든 사회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문명사회 진보의 관점에서 보면, 순수한 경제현상마저도 이러한 사회현상을 포괄하는 시대정신과 관습 그리고 전통에 얽매인 제도와 유리되어서 결정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그가 계율주의자인 아버지 James Mill로부터 받은 교육의 기본 정신인 公利主義 사상에 연유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지도하에 3살부터 그리스어와 8살에 라틴어를 배워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역사학, 문학, 철학, 논리학 등을 대부분 독파하였으며, 14살에 1년간 불란서 체재중 접한 理性主義 思想을 통해서 영국의 문제를 세계적 관점에서 보는 기회를 가졌다. 그런데 경제학은 그의 교육 과정의 완성기인 13살에 Ricardo의 『政治經濟學과 課稅의 原理』를 접하였을 뿐이다. 이외에도 그는 Hume과 Smith의 저작을 통해 이들의 경험주의적 이성론에도 익숙해 있었다.

물론 이러한 교육을 통해 습득한 政治經濟學은 그의 연구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였으나, 어디까지나 일생을 통하여 그의 정신을 지배한 것은 Bentham의 公利主義 思想이었다. 그는 15살때 이미 公利主義의 사상에 심취되었고, 이러한 규범이 지향하는 사회개혁자가 될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음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立法論』을 모두 읽고 냈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公利의 原則은 사물에 대한 나의 단편적인 개념에 통일성을 부여하였다. 이제 나는 내 의견을 가지게 되었다. 종교란 말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의미에 있어서 하나의 종교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남에게 가르쳐 주고 또 이것을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을 외부에 대한 내 인생의 주요 목적으로 삼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학설(公利主義)을 통해서 인류의 상태를 여러모로 변화시켜 볼 수 있는 하나의 웅대한 구상이 내 머리에 떠올랐다. 이것은 내가 진심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또한 내 인생에 광명을 주었다.”¹¹⁾

Mill은 그후 Bentham의 개인비서로 수습기간을 거쳐 17세에 동인도회사 런던사무소에 직장을 얻어 근무하면서 동료들과 공리주의협회(The Utilitarian Society)를 결성하고 기관지인 Westminster Review에 기고활동을 통해 공리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그가 세론에 호소한 기

11) Autobiography, p.47.

고문의 논지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보장, 정치 및 법제도의 개혁, 그리고 산아 제한과 여성의 권리신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¹²⁾

그런데 그는 20세에 들어 스스로의 활동과 인생목표에 대한 심각한 회의에 빠지며 이는 정신적 위기로 진전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은사인 Bentham과 아버지로부터 습득한 Bentham사상의 편협성과 이들의 사회과학 접근방법상의 오류를 자각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들로부터 받은 혹독한 교육 과정이 몰감정적이며 劃一的 合理主義에 매몰된 내면적 자아의 질식 등과 같은 한계성을 극복하여 성숙한 사상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 중요한 계기는 낭만시인 Wordsworth와 Coleridge 그리고 St. Simon 등 불란서의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영향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다음은 그가 정신적 위기를 창조적으로 극복 승화하여 정립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누가 나더러 하나의 思想으로서 내가 버렸던 思想 대신 어떠한 政治思想을 가졌느냐고 묻는다면, 아무 思想體系도 가진 바 없다고 답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나는 올바른 사상체계란 내가 기왕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면적인 것이며, 올바른 체계의 본분이란 일련의 特定制度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어떠한 환경에도 적합한 制度를 연역해낼 수 있는 原理를 제시하는 것임을 자각하게 되었을 따름이다.”¹³⁾

이것이 바로 그가 사회개혁을 선구할 독자적인 사상적 토대이다.

또한 그는 정신적 위기를 극복한 후 아버지의 방법론에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승화하여 그 스스로의 논리학 체계를 집대성하기에 이르렀다. Mill은 젊었을 때부터 지식탐구의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져왔다. 그러던 중 그가 정신적 위기를 벗어난후 독자적인 社會科學 方法論을 정립할 계기를 맞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저작인 정치철학(Essay on Government)을 둘러싸고 저자와 Macaulay 등 간에 전개되었던 논쟁이었다.¹⁴⁾

Mill이 이 논쟁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지식탐구의 방법이 단순히 연역법과 귀납법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식탐구의 대

12) *Autobiography*, p. 93.

13) *Autobiography*, p. 113.

14) *Autobiography*, pp. 110~113.

상과 이성론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가치중립적인 측면과 규범적인 측면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政治哲學의 方法論에 관한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은 순수한 학문탐구의 대상문제와 정치적 입장을 혼돈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논쟁에 가담한 학자들의 인식론과 방법론상의 오류는 무엇인가? 먼저 Coleridge와 Carlyle 등은 지식을 얻는 방법으로서 직관적 인식의 타당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구체성과 역사성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직관학파의 인식론은 그들의 성향과 부합되는 원리만을 직관적 진실로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이성을 초월하는 오류를 내포하고 있었다. Mill은 이러한 직관적 인식론을 부정하는 대신 경험에 입각한 구체성과 역사성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經驗主義的 歸納法은 경험으로부터 귀납된 단순한 지식을 나열함으로써 普遍性을 결여하였다. 그런데 James Mill에 의하면 지식은 인식적 경험을 통하여 얻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성은 영구불변이라는 단순한 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의 개혁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추상적이고 몰역사적이었다. 즉 James Mill의 경우에는 귀납법에 근거한 연역적 추론을 사회현상의 분석에 적용하여 보편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한것까지는 옳지만, 그가 영구불변으로 인식한 人間性의 心理法則을 그대로 적용한 점은 타당치 못하다는 점이다.

그러면 Mill이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추론과 함께 사실의 검증이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에 있어서 지식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선험적인 추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추론이 사후적인 관찰의 결과와 부합되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현상의 복잡성이 증대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인간성의 심리법칙에 근거한 선험적 추론이 매우 어렵게 된다. 이러한 경우 Mill은 Comte의 실증주의적 逆연역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고 보았다.¹⁵⁾ 즉 구체적인 현상에 연역법의 적용이 어려운 복잡한 현상의 분석에 있어서는 그 순서를 달리 바꾸어서 먼저 특정현상의 관찰을 통해 경험법칙을 귀납적으로 밝혀 내고, 그 다음 인간성의 심리법칙에 근거한 연역법으로 검증하는 우회적 접근방법이다. 그리고 이 兩者가 부합되면 經驗法則은 因果法則이 된다. 그는

15) Mill, *A System of Logic: Ratiocinative and Inductive* (1843), Collected Works of J.S. Mill, Vol. VII-VIII,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4, pp. 915~917 및 925~928.

이러한 접근방법을 경제현상의 분석에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접근방법은 분석대상의 가치중립성과 인간행위의 인과법칙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인간의 도덕규범과 상충된다고 보았다. 그러면 인간의지를 지배하는 규범과 원리는 무엇이며, 정치경제학은 어떻게 이러한 규범과 원리를 수용할 수 있는가? Mill에게 있어서 그것을 제공하는 것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實踐理性的 原理이며, 이것은 인간성의 원리와 자연과학의 법칙을 종합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인간의식의 내면적 영역에 관한 문제의식 결여에 대한 비판과 Ricardo의 이론체계, 그리고 스스로의 思想體系를 흡수하여 경제학의 연구대상을 실증적 영역과 규범적 영역으로 이원화하고, 이를 다시 Bentham사상 및 Comte의 방법론과 통합함으로써 경제학을 하나의 독립과학으로 정립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상편력과 성찰·성숙과정은 사회개혁을 선구하는 원리와 실천적 대안으로서 『政治經濟學原理』의 내용과 접근방법에 독특한 성격을 부여하였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자신의 사상을 이질적 규범과 이념에 스스로 개방하고 어떠한 패러다임으로부터의 장점도 자신의 사상체계로 수용한 점이다.¹⁶⁾ 그러나 그의 패러다임은 독선적이거나 광신적이 아니면서 그의 사상을 관류하는 基本原理와 規範의 독창성을 유지한 점은 괄목할 만한 것이다.¹⁷⁾ 그는 자유방임적 고전경제학 사상과 Bentham사상의 경직성을 대륙의 이성주의와 이상주의적 요소를 積極的 介入主義的 思想으로 융합·동화하였으나 그의 사상은 독자성을 그 본질로 하면서도 복합적이며 다면성을 함축하고 있다. Mill은 이러한 사고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부인 Harriet의 영향이 컸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사상은 사회개혁을 위한 현상의 적용에 있어서는 신축성과 실용성을 갖는다는 장점도 있으나 近代經濟學의 관점에서 볼 때 일관성이나 통일성에 있어서 상충적인 요소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명사회의 지도원리로서 그가 『政治經濟學原理』에서 다룬 과제 중 기술진보의 영향, 사회적 관습의 개선, 그리고 제도개혁의 효과 등에 관한 논쟁은 이

16) *Autobiography*, p.177. 여기서 Mill은 그가 이러한 사고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부인 Harriet Taylor의 영향이 컸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17) Schumpeter,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54, p.528.

저작이 출간된지 무려 한세기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미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勞動節約의 技術進步의 雇傭 및 分配效果, 競爭市場과 정부규제영역간의 균형과 조화, 자유 민주주의하의 효율적 정부와 숫적 다수의 압제, 그리고 사회진보에 있어 자생적 조직의 형성과 활동영역의 문제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經濟學史에서는 Mill을 고전경제학 체계를 집대성한 하나의 경제학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政治經濟學原理』의 부제인 ‘사회사상중 그 일부의 적용’이 함축하는 바와 같이 그의 정치경제학 원리는 추상적인 이론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와 경제, 규범, 그리고 사회개혁을 선구하는 실천적 대안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로 심오한 사상서이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그가 정신적 위기를 벗어나면서 Harriet Taylor 부인과의 교제 및 결혼을 통해 그가 지향하는 사회의 이상이 民主的 社會主義로 기울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그의 경향은 산업자본주의의 효율성이 소득분배의 개선과 조화되지 않는 한 영국사회는 그가 지향하는 시민적 자유주의에로의 발전이 불가능함을 자각함에 있었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는 Marx가 표방한 社會主義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자기보전만을 위한 생존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광범위한 노동대중의 교육과 도덕적 자질함양을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이 경제적 및 정신적 풍요를 향유할 수 있는 이상사회의 규범과 맥을 같이한다.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이상사회의 실현은 관념의 범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며 당시 미국경제발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영국에 있어서는 물론 범세계적으로 그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믿었다.

IV. 政治經濟學原理

Mill이 『정치경제학원리』의 집필을 구상중이던 1845년경 영국경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고 있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활발한 자본축적에 힘입어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유례없는 철도 및 수송부문의 투자·투기붐의 만연, 경기진폭의 심화와 이에 따른 금융위기와 기업의 대량 도산, 그리고 미증유의 대량 실업이 속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두번째 연속된 아일랜드지방의 감자기근과 인구의 대량 이

동, 그리고 영국 전역의 소매홍작으로 곡물가격이 폭등함으로써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간의 상대적인 소득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영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신흥자본가와 지주계급에 거대한 소득과 부의 집중을 촉진하는 반면 노동자계급의 생활수준은 뚜렷한 향상의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의 자동조절기능을 신봉하는 자유방임적 경제이론은 이러한 사회적 위기의 진단과 극복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그가 政治經濟學의 집필을 서둘게 한 하나의 요인이었다. 그러나 政治經濟學의 서문은 이 저작의 집필동기가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처방을 모색하는데 국한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그는 보다 본질적이며 항구적인 문명사회의 진보와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서 새로운 문제의 해결과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현대판」 국부론의 집필을 시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오늘날 經濟學이 요구하는 것은 그 목적과 착상이 Smith의 저작과 유사하지만 현대의 보다 넓은 知識과 향상된 思想에 부합되는 저술을 함으로써 사회의 진보에 공헌하는데 있다.”¹⁸⁾

물론 여기에서 문명사회의 진보를 위한 실천과제는 경제성장의 촉진과 소득분배의 개선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제도의 개혁과 정책수단의 모색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時代精神은 노동자를 포함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사상이다. 그런데 그는 Smith의 자유방임적 國富論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 특히 부와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이론으로서는 그 유용성이 상당부분 진부한 것으로 보고, 그 대안으로서 Ricardo와 Malthus의 이론을 公利主義 규범의 실현에 부합되도록 生産理論과 分配理論으로 이원화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생산법칙은 순수한 경제이론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자원의 희소성과 인간의 이윤동기 등은 객관적인 원리의 지배를 받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分配法則은 역사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순수한 경제학의 탐구대상을 초월하며, 따라서 그 사회가 지향하는 규범을 반영하는 制度改革을 통해서 부분적인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제도개혁은 역으로 국부의 증진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진보와 복지의 증

18) Mill, *Princciples of Political Economy*, p. 92.

진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생산요소의 가격이 생산물의 가격과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생산요소의 상대가격과 소득분배는 市場原理(생산 법칙)에 지배되므로 이것 자체는 변경할 수 없으나, 사회계급간의 소득분배는 역사발전의 산물인 사유재산제도, 상속법, 토지제도, 조세제도의 개선(분배법칙)과 국가간의 교역증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의미하는 바는 사회진보를 위해 市場原理와 私有財産制度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시장기능을 뒷받침하는 사회제도의 개혁이 자원배분의 效率性 제고와 所得分配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도외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사회제도의 개혁은 그 자체로서 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나 제도의 개혁은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사회 전반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私의 收益率을 사회적 수익율에 접근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분배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올바른 지적이다. 그러므로 분배법칙의 이해와 사회제도의 개혁은 사회진보에 부응하는 역사법칙의 규명을 통해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접근방법은 인간의 이성이 단계적으로 진보한다는 Comte의 實證主義 철학에 기초한 것이다. Comte는 역사법칙의 초기단계에서는 인간의 사고가 신의 뜻에 지배되며, 그 다음 단계에서는 自然法思想으로 대체되고, 마지막 단계인 문명사회에서는 진리탐구가 과학적 방법에 기초하여 이루어 진다고 보았다.¹⁹⁾

Mill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접근방법에 따라 政治經濟學의 내용을 전편(Book I, II 및 III)과 후편(Book IV 및 V)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편에 생산이론, 가치론 및 교환이론 등 靜學模型을 담은 반면, 후편의 動學模型에서는 사회진보가 생산 및 분배에 미치는 효과와 사회가 충분히 진보하여 궁극적으로 도달할 정상상태의 내용, 그리고 이러한 정상상태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학모형은 그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Mill은 먼저 노동, 자본 및 토지를 기본 생산요소로 규정하고 이들 생산요소의 양적 증대와 질적개선 원리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생산량

19) Ekelund and Herbert, *A History of Economic Theory and Method*, 2nd ed. McGraw-Hill Book co., 1990, p. 174.

의 결정과 그 수준의 증가원리를 집약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생산활동을 인구증가와 식량공급간의 경주(Malthus의 인구함정)로 파악한 Ricardo의 모형을 통해 소득분배는 貨幣經濟에서도 생산요소의 상대가격과 기술진보 등 실물변수에 의해 결정됨을 부각시켰다. 특히 그는 지대는 식량수요에 지배되며 따라서 이윤율은 임금률과 역의 관계에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이러한 논증을 위하여 그는 모형을 인구법칙, 수확체감법칙, 임금기금설, 그리고 Say의 법칙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Mill은 여타 경제학자들과 같이 생산에 있어서 資本蓄積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Malthus와는 입장을 달리하였다. 즉, Say의 법칙이 성립하는 한 생산수준과 고용규모는 자본축적(임금기금)의 함수이며, 따라서 저축도 항상 투자와 일치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총수요의 부족은 지속될 수 없다고 보았다. 반면, 要素市場은 生産物市場을 반영함으로 모든 시장이 경쟁적이며 자원의 이동이 제약되지 않는 한 모든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은 자연율에 수렴하게 된다. 그러나 토지는 비옥도 차이와 이동의 제약으로 인하여 지대는 수요요인에 의해 지배됨으로 생산물의 분배는 資本家와 勞動者에게 불리하며, 이러한 정도는 인구밀도가 높은 사회일수록 심화된다는 것이 그의 논지이다.

그는 이상의 고찰이 정제되고 불변하는 사회의 경제법칙일 뿐 발전적 변화를 경험하는 經濟社會의 변화내용과 그 法則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궁극적 경향의 설명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발전적 변화의 궁극적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靜學理論에 운동법칙을 추가하여 政治經濟學을 사회진보를 선구하는 動學理論으로 발전시켰다.²⁰⁾

그는 靜學模型에서와 마찬가지로 動學理論에서도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은 자본축적(저축증대)이며 자본축적은 이윤율과 저축에 대한 예상수익율에 지배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의 증대, 즉 생산증대를 제약하는 기본요인은 두 가지로서 그 하나는 수확체감(한계비용상승)의 법칙이며, 다른 하나는 이윤율 저하의 법칙이다. 이는 利潤率과 生産費는 역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生産費의 상승이 극복되지 않는 한 利潤率은 하락하고 자본축적과 인구증가가 정제되는 정상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Mill의 문제의식은 어떻게 하면 이윤율의 저하와 자본축적의 정제를 극복함으로써 경제사회의 진

20)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Book IV.

보를 최대한 촉진시키느냐에 있었다.

물론 Mill도 경제사회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운동법칙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피하는 점에 있어서는 당대의 경제학자들과 견해를 같이하였으나 정상상태의 내용과 소망성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였다. 그에게 있어서는 한 경제사회가 충분히 진보한 후 최종적으로 맞이하게 될 정상상태는 사회개혁, 즉 公利主義 규범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한 일종의 理想郷이었다.²¹⁾ 즉 국민소득이 충분히 향상된 문명사회에서는 부와 소득분배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진보된 사회에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현존하는 부의 범위내에서도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아귀다툼과 혹독한 노역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 대신 부의 추구에 쏟았던 탐욕과 정력을 分配正義의 실현과 개인적 자유의 신장, 그리고 개성있는 삶, 즉 행복의 추구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Malthus와 Ricardo의 암울한 상태와 그 의의를 달리한다.

그리고 Mill이 지향하는 理想社會는 추상적이며 형이상학적인 관념의 범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서 그 실현이 가능함을 확신한 점이다. 그는 이러한 이상사회의 실현이 가능한 근거를 노동자계급에 잠재해 있는 내면적 규범의식의 함양과 자조정신의 발로에서 찾고 있으며, 이러한 자조정신은 교육의 보편화와 사회전반의 制度改革을 통해서 제고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러면 그가 의미한 이상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社會組織의 原理와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아래에서는 이러한 그의 사회진보관과 이를 뒷받침하는 社會動學理論을 개관하기로 한다.

V. 社會進步와 所得分配

인류의 역사를 조감해 볼 때 경제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富(생산)의 지속적 증대이며, 이러한 발전적 변화는 공통적으로 자본축적, 인구증가, 그리고 생산기술의 진보에 기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보는 生産物과 生産要素의 상대가격 및 社會階級간의 富와 所得分配의 변화를 결과한다. 그리고 그는 현재 부의 지속적 증대를 경험하고 있는 문명사회는 앞으

21)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Book IV, Ch. VI.

로 더욱 진보할 것이며, 이러한 문명사회의 진보는 국가간 평화가 계속되고 사회가 안정되는 한 국제교역의 확대와 생산요소의 이동 등을 통하여 후진국으로 확산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는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낙관하였다.²²⁾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산업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자본축적, 인구증가, 그리고 생산기술의 진보이며, 이러한 산업발전에 수반되는 기타의 변화, 즉 生産物과 生産要素의 상대가격 및 사회계급간 소득분배는 생산을 지배하는 자본, 인구, 그리고 기술진보의 결과로 규정하였다. 물론 所得分配의 개선과 이를 반영한 社會階級간의 수요구성 변화는 역으로 가치와 가격체계의 변화를 결과하며, 이는 다시 생산요소 및 산출재의 수요공급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환류효과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았다. 아무튼 그는 산업발전의 기본요인을 生産法則에서 찾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먼저 생산요소의 양적증대 및 질적개선의 유인과 이를 유발하는 제도로써 진보하는 사회의 일반적 특징을 검토하고, 이들의 발전적 변화가 가치와 가격, 그리고 所得分配에 미치는 원리를 개관한다. 그가 이러한 원리의 검토를 통해서 얻은 결론중 사회진보의 제약요인은 이윤율의 저하, 즉 生産費 상승으로 집약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利潤率의 저하요인을 극복하여 자본축적과 기술진보를 최대한 도모하는 정책대안을 검토함으로써 그가 지향하는 이상사회의 이행과정을 고찰한다.

1. 文明社會進步의 一般的 特徵

그러면 문명사회의 진보를 촉진하는 주목할 만한 공통적 특징은 무엇이며, 이러한 특징의 발현을 조성하고 복돋우는 社會制度和 動因은 무엇인가? 그는 한 사회의 진보를 촉진하는 가장 주요한 특징은 생산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발달이며 이러한 생산기술의 진보를 유발하는 動因은 재산제도의 발전과 그 처분에 대한 자유의 확대, 사회구성원간 分業과 協同原理의 실천 및 확대, 그리고 공정한 보상체제와 경쟁질서의 창달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제도의 개선과 협동능력의 제고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무한한 자본축적과 지속적 인구증가의 여지를 확대시킨다.²³⁾

22)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Book IV, Ch. I, II.

23) 前掲書.

그런데 한 사회가 이러한 사회적 진보의 요인을 적절히 결합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면, 이는 한편으로는 다양한 생산물의 획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증대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반면, 生産物의 分配에 관한 여러가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중 하나는 자본축적이 인구증가를 능가함으로써 생산의 증대와 고른 소득분배를 가능케 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안락한 생활을 향유하는 상태로 발전하는 경향이다. 다른 하나는 資本蓄積과 人口增加가 비례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이 기존의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다. 또다른 가능성은 人口增加가 資本蓄積을 압도함으로써 대부분의 노동계급은 사회진보의 혜택에서 소외되며 이들의 생활수준은 오히려 악화되는 상태이다.

따라서 動學模型에서는 사회진보의 궁극적 경향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아래에서는 먼저 産業發展과 人口增加 및 技術進歩가 가치 및 가격 그리고 임금, 이윤 및 지대에 미치는 효과를 차례로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그가 지향하는 정태사회로의 이행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기로 한다.

2. 産業發展과 人口增加가 價値 및 所得分配에 미치는 效果

生産技術의 진보, 재산권제도의 발전, 그리고 分業의 확산은 일반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비와 가격의 하락을 유발한다. 또한 국내의 교통 및 통신의 발달과 자유무역의 확대, 그리고 人口와 資本의 국제이동은 시장을 광역화하고 분업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생산물의 상대가치와 가격의 하락을 촉진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발전적 변화는 각 生産要素의 相對價格을 균등화시키고 유사직종간의 소득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모든 생산부문과 요소시장을 지배하는 한 문명사회의 생산은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으며 또한 所得分配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산물과 광산물의 경우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생산비는 오히려 상승하며, 이는 地代와 名目賃金의 상승과 이윤율의 하락을 유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所得分配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경제의 자본축적과 성장을 제약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인구밀도가 높고 경작지의 공급이 제한된 유럽국가의 경우에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산업의 발전과 인구증가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밝히기 위해서는 자본축

적, 인구증가 및 기술진보에 수반되는 生産要素의 相對價格 결정원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3. 産業發展과 人口增加가 地代, 利潤 및 賃金에 미치는 影響

Mill은 국민경제 발전의 공통적 특징은 資本蓄積, 人口增加 및 技術進歩를 통한 생산물의 지속적 증대이며, 이러한 산업발전에 수반되는 생산요소의 가격변화 및 소득분배 등 기타의 변화를 생산을 지배하는 자본, 인구 및 기술진보의 결과로 보았다. 생산물중 농산물은 노동자, 자본가 및 지주의 소득으로 분배되는 반면, 제조업생산물은 노동자와 자본가에게 배분된다. 아래에서는 生産要素의 供給増大와 技術進歩가 所得分配에 미치는 영향을 5가지 경우로 분리하여 논의하고 이를 종합하여 산업발전의 궁극적 경향이 소득분배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기로 한다.²⁴⁾

1) 人口增加가 資本蓄積을 압도하는 반면 技術進歩가 정체된 경우

인구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실질임금의 하락과 이윤율의 상승을 가져온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된 이윤은 인구부양을 위한 농업생산에 배분되며, 이러한 자원배분효과는 기술진보가 없는 한 農業生産費 및 地代의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실질임금과 이윤율은 저하되고 자본축적과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2) 資本蓄積이 人口增加를 능가하는 반면 技術進歩가 정체된 경우

인구증가와 기술진보가 정체된 상태에서 자본공급의 증대는 실질임금의 상승을 의미하며 이러한 실질소득의 증대는 식량수요의 증가로 나타난다. 이는 農業生産費 및 地代의 상승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공급의 증대효과는 대부분 지주의 소득증가로 흡수되는 반면, 자본가의 저축유인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성장과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제약하게 된다.

3) 人口와 資本供給이 비례하는 반면 技術進歩가 정체된 경우

인구와 임금기금(자본축적)의 비례적 증가는 식량수요의 증대를 의미하며, 따라서 農業生産費와 名目賃金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實質賃金은 기준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는 화폐지대와 총이윤 규모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은 상대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자본축적의 유인을 저해하고 따라서 경제성장도 정

24)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Book IV, Ch. III.

체하게 된다.

4) 人口 및 資本供給이 정제되고 生産技術이 진보하는 경우

Mill은 생산기술의 진보가 어느 산업부문에서, 그리고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냐에 따라 경제성장 및 소득분배 효과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기술진보가 자본가 및 지주계급이 대량 소비하는 재화의 생산부문에 국한될 경우, 이들 계층의 실질소득은 증가하게 되며 따라서 소비자로서는 所得分配改善效果를 누릴 수 있으나 자본가로서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이윤율은 임금율에 의존하는 반면, 이들 상품은 사치재이므로 賃金率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利潤率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계급이 대량 소비하는 공산품생산부문에 技術進歩가 있는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地代와 名目賃金은 변하지 않고 따라서 利潤率에도 변화가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공업부문 기술진보의 효과가 인구증가로 나타나면, 이는 地代와 名目賃金을 상승시킴으로써 利潤率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반면 농업부문의 기술진보는 인구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한 그것이 노동절약적이건 또는 토지절약적이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개선에 크게 기여한다.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는 한편으로는 농산물의 한계생산비 하락과 노동계급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하며, 地代下落과 이윤율 상승을 결과함으로써 자본축적을 촉진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토지절약적 기술진보와 병행된다면 이는 노동생산성 향상에 추가하여 土地의 生産性 향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진보의 효과는 전반적인 생산비의 하락과 토지수요의 감소를 촉진함으로써 지대는 더욱 감소되는 반면, 노동자의 실질소득 향상과 이윤율의 제고를 통해 자본형성에 기여한다. 또한 이러한 자본공급의 증가는 공업부문의 고용을 증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성장과 所得分配의 개선 여지를 크게 확대시킨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기술진보는 인구의 증가와 경작지 수요증대를 유발하지 않는 한 利潤率의 제고와 자본형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소득분배의 개선에 기여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제약하는 핵심요인은 利潤率低下로 인한 資本形成의 정체이며, 이러한 이윤율의 저하는 인구부양을 위한 농업생산의 수확체감법칙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생산비 절감과 인구억제를 통해 이윤율의 저하를 지연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로 집약된다.

5) 人口增加와 資本蓄積, 그리고 技術의 進歩가 병행하는 경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人口增加와 資本蓄積은 地代 및 賃金의 상승과 利潤率의 저하를 수반하며, 이러한 경향은 임금재부문의 기술진보효과가 생산비의 상승효과를 압도하지 않는 한 더욱 더 촉진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환언하면, 生産의 지속적인 증대와 所得分配의 改善은 농업부문의 기술혁신과 이러한 혁신의 확산속도에 지배되는 것으로 밀은 보고 있다.

그런데 農業部門의 기술혁신은 간헐적, 불연속적일 뿐만 아니라 기술진보의 확산속도 또한 완만한 반면, 인구나 자본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경험적 사실이다. 이는 사회진보, 즉 인구증가와 자본축적이 활발할수록, 그리고 경작지의 공급이 제한적일수록 생산비와 지대는 상승하고 이윤율의 하락은 촉진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Mill은 사회진보에 수반되는 生産費의 상승과 利潤率의 하락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극복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VI. 社會進歩와 公共政策

앞의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經濟成長의 지속과 所得分配의 개선은 資本蓄積의 지속 여부에 달려 있으며, 자본축적은 저축에 대한 예상수익율과 이윤율에 지배된다. 그런데 그는 자본축적을 유발하는 이자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하여 최저수준에 수렴하는 경향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상쇄할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경제는 성장의 정체와 빈곤이 지배하는 암울한 상태에로의 회귀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Mill은 이러한 이윤율 저하의 귀결을 방임할 수 없으며, 이를 극복하여 영국이 그가 지향하는 理想社會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 대안의 모색이 정치경제학의 기본과제라고 보았다.²⁵⁾

그러면 이윤율의 저하요인과 그 배경은 무엇이며, 이윤율저하를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자본잉여국의 정책대안은 자본부족 상태의 그것과 같아야 하는가 또는 달라야 하는가?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Mill은 이윤율이 生産物의 價格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는 기존 이론의 오류와 정책시사를 바로잡

25)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Book IV, Ch. IV.

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A. Smith에 의하면 특정부문에 대한 자본공급증가는 이 부문 생산물의 공급증가와 가격하락을 유발하며, 이러한 가격하락은 이윤율의 하락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맥락에서 보면 資本供給의 증가는 자본의 산업간 이동과 生産部門간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모든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생산물의 상대가격과 자본의 실질수익율은 하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이윤율이 하락했다면 이는 생산비의 상승에 기인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사후적인 관찰의 결과도 부합된다고 보는 것이 Mill의 견해이다. 利潤率의 生産費 支配理論, 즉 이윤율의 저하가 賃金과 地代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지 자본공급증가로 인한 생산물의 가격하락에 있지 않다는 Mill의 이론은 기존의 자유방임적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게 된다.

19세기 중엽(1830~1870) 영국은 경제성장의 황금기를 경험하였다. 이 기간 동안 영국은 사회전반의 안정과 財產權 保護의 강화 및 技術의 급속한 발전으로 경제 성장은 촉진되고 저축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투자기회는 국내 제조업부문과 철도사업 등에 국한됨으로써 資本古邑의 과잉이 심화되고, 投資效率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었다. 또한 자본공급의 급속한 증가는 고용의 확대와 식량수요의 증대를 유발함으로써 농산물과 광산물의 生産費上昇 및 利潤率의 下落을 촉진하였다. 환언하면 영국은 19세기 중엽 이미 자본의 회소성은 크게 완화된 대신 토지의 회소성이 제고됨으로써 이것이 이윤율저하와 자본축적, 그리고 경제성장과 노동자 복지향상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資本剩餘狀態에 있어서의 경제정책의 초점은 저축의 극대화가 아니라 利潤率의 제고에 맞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Mill은 무엇보다도 생산비상승의 억제와 투자효율의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과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²⁶⁾

먼저 국내적으로 資本의 投資效率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公共投資를 늘릴 필요가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은 각종 생산물과 원자재의 수송비용을 낮춤으로써 민간부문의 투자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또한 市場의 擴大와 分業을 촉진시킴으로써 생산비하락과 노동자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한다. 즉 자본잉여상태에서 公共投資의 확대는 민간부문의 자본형성, 다시 말해 임금기금

26)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Book IV, Ch. V.

의 증대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증대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자본부족 상태에서 부정적으로 보았던 公共投資의 유효론은 수정되어야 한다.

자본축적이 부진한 상태에서 가변자본의 일부를 고정자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는 임금기금과 고용 감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자본공급의 과잉과 투자 기회의 제약으로 이윤율이 급속히 하락하는 영국의 경우에는 자본의 일부를 고정자본으로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가변자본의 증대에 보다 효과적이다. 제조업 공정의 기계화, 철도부설과 선박 건조, 운하 건설, 광산 개발, 그리고 관개 사업의 확대는 한편으로는 分業의 확대와 技術發展을 촉진시킴으로써 생산비 하락과 이윤율의 제고를 유발하고 이는 가변자본의 증대를 촉진한다. 다른 한편으로 자본축적은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실질소득을 증대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하며, 市場의 확대는 다시 分業과 技術發展의 촉진에 기여한다.

기술진보의 자본축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생산비 하락을 통한 利潤率의 제고 효과이며, 이러한 효과는 농산물 등 필수소비재 생산 부문에 기술진보가 활발할수록 더욱 크다. 또 다른 하나는 기술진보가 일반소비재의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로서 일반소비재의 가격하락은 실질소득의 향상과 저축을 증대하는 효과이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높고 경작지의 공급이 거의 소진된 영국에서는 技術進步를 통한 農業生産費 절감노력은 가까운 장래에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영국의 경제발전이 활발할수록 이러한 경향은 심화될 것이다. 그런데 곡물법의 폐지와 수입확대를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식량 및 원자재를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다면 이윤율저하는 상당기간 상쇄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상상태의 도래도 오랜동안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은 이미 거의 모든 農產物과 工業原料의 供給을 해외수입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식량과 원자재의 수출국가중 미국 등 일부 식민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후진국의 農業技術의 진보는 정체되어 있으며, 농업개량에 필요한 자본축적 또한 부진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영국이 저렴한 곡물과 공업원료의 수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國內資本의 海外投資와 이민의 장려책이 필수적이다.

해외투자를 통한 식량과 공업원료의 개발수입은 한편으로는 자본수익율의 저하를 지연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품 수출을 통한 수입대금의 지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의 產業發展과 資本蓄積에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해

외이민의 장려는 국내의 토지수요증대와 이로 인한 地代上昇 압력을 완화함으로써 名目賃金의 하락과 利潤率의 상승을 가능하게 한다. 생산기술의 진보, 사회간접자본 형성, 그리고 자본과 인구의 해외이동은 국내생산비의 절감과 이윤율의 하락을 억제함으로써 더 많은 資本蓄積을 통해 정체상태의 도래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國富의 증대와 雇傭증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산기술의 진보와 생산물의 교역확대, 그리고 資本의 국제이동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것은 모든 사회의 진보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진보의 여건조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Mill은 사회진보가 가장 앞서고, 인구증가가 계속되는 나라(영국)는 資本供給의 과잉이 심화되더라도 海外投資의 기회가 존재하며 또한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社會制度의 개혁이 실현된다면, 利潤率이 저하되어 자본축적이 정체되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기간은 오랫동안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다.

VII. 社會進歩와 人類의 將來

우리는 앞에서 Mill의 사회진보론을 고찰하였다. 그는 진보하는 사회의 공통적 특징을 자본축적, 인구증가, 그리고 生産技術의 진보로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진보에 수반되는 기타의 변화, 즉 國富의 증진과 所得分配은 생산을 지배하는 자본, 인구, 그리고 生産技術 진보의 결과로 보았다. 그리고 국부의 증진과 자본축적의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보다도 生産技術의 진보와 자본 및 인구의 국제이동을 통한 生産費 절감에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기술진보와 국제교역의 확대에 인구증가의 억제노력이 수반되면 노동자의 복지증진 효과는 더욱 더 뚜렷할 것이다.

그런데 生産技術의 진보는 무한히 계속될 수 없으며, 또한 資本 및 人口의 국제이동과 그리고 해외에서 곡물 및 공업원재료를 개발하여 수입할 기회마저 소진된다면 사회는 궁극적으로 資本蓄積과 인구증가가 정체하는 상태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상태에 도달할 시기는 먼 장래의 일이 아닐런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인류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모든 사회구성원이 빈곤하고 암울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처할 것인가

아니면 대다수 국민이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으로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러한 문명진보의 최종상태에 관하여 Mill은 기존 경제학자들과 견해를 달리하게 되는데 먼저 이들 사상가들의 견해와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논리를 살펴보자.

기존 사상가들은 國富와 資本蓄積의 정체는 인류에게 빈곤과 어두움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본축적과 국부의 증대만을 긍정적으로 간주하였을 뿐 所得分配의 개선은 주요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McCulloch에 의하면 경제적 번영은 오직 생산의 증가를 의미할 뿐이며, 높은 이윤율의 유지와 자본축적만이 정상상태의 도래를 지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였다. A. Smith도 대다수 빈곤계층의 상황개선은 국부증진과 자본축적을 통해서 가능하며, 국부증대의 혜택은 分業의 진전을 통하여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였을 뿐 所得分配의 개선은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Malthus는 정상상태의 도래에 관한 기존 사상가들의 우려를 가장 명확하게 부각하였는데, 그는 한 사회가 인구함정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人口増加를 압도하는 生産의 증대에 있다고 보았다. 환언하면, 인구는 항상 증가하기 마련이므로 불어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대안은 오직 생산의 지속적 증대뿐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심지어 진보하는 경제에서조차 資本蓄積이 人口増加를 압도하지 않는 한 가난한 다수의 상황개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진보와 분배개선에는 무엇보다도 산아제한이 필수적이며, 산아제한의 필요성은 정제된 사회일수록 더욱 절실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들 사상가들의 공통적 오류는 노동자계급에게는 자발적 산아제한 능력과 자조정신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영원히 불변인 것으로 가정한데 있었다. Ricardo 역시 인구과잉은 노동계급 스스로의 무지와 자조의식의 결여에 기인되기 때문에 인구함정의 극복은 불가능한 것으로 믿었다.

물론 Mill도 현존의 생존을 위한 투쟁과 아귀다툼이 인류가 소망하는 정상상태의 모습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는 정상상태에서 노동계급의 삶은 현재 문명사회(영국)의 상태보다 월등히 개선되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현재 대다수 국민이 경험하는 삶은 더 높은 야망의 성취를 위한 자구정신의 표출로써 정상상태로 진보하는 과정에서 치뤄야 할 불가피한 진통일 뿐이며 社會主義者들이 냉소하는 바와 같이 사회가 퇴보하는 징표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런데 Mill 자신도 문명사회의 진보와 더불어 農業生産에 있어

서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게 됨으로 이윤율의 하락과 자본축적의 정체는 필연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Mill은 사회제도의 개혁과 사회구성원의 사고전환 여부에 따라서 利潤率의 저하를 상당기간 지연시켜 지속적 자본축적을 도모함으로써 사회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의 생활이 풍요롭고 정신적 덕목을 함양할 수 있는 정상상태로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점에 있어서 그는 이러한 정상상태의 도래를 자연법칙의 귀결이며 따라서 불변의 철칙으로 신봉했던 Malthus와 Ricardo와는 달리 오히려 높은 國民所得과 고른 所得分配 등 이상향의 구현을 위한 여건의 성숙으로 보는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낙관론의 근거는 노동자계급의 품성이 영구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理性을 통해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 데 있었다.²⁷⁾ 즉 충분한 물질적 풍요의 진전과 함께 노동자계급이 스스로 출산성향을 자제할 수 있고, 또한 자제가 실현된다면 그들의 생존만을 위하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할 필요는 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여건의 성숙은 土地 대신 자신들의 희소성을 제고함으로써 — 그는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 생산의 잉여가 지주 대신 노동자계급의 實質所得 향상으로 귀결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는 아무도 가난하지 않고, 아무도 더 이상 부자가 되려고 발버둥치지 않으며, 또한 앞으로 나아가려는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짓밟힐 걱정도 없는 사회로서 인간성에 있어서 최선의 상태이다. 급료가 충분한 노동자가 스스로 노력하여 얻는 것 이외에는 富의 축적은 불가능한 상태, 현재보다 훨씬 많은 사회구성원이 혹독한 일상의 노역으로부터 벗어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가로움을 즐기고 자유로운 인생의 참뜻을 음미 개척하는 상태, 그리고 정신적 명상에 잠기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창조적 활동과 개성을 추구하는 그런 상태가 정상상태라고 역설하였다.²⁸⁾

물론 이러한 정상상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상적인 사회이다. Mill이 19세기 중엽에 이러한 상태의 도래가 임박했다고 본 것은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制度의 改革과 인간심성의 전환이 가능하다면 이상사회는 더 이상 理想社會가 아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보았다. 교육을 통하여 최

27)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Book IV, Ch. VII.

28)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pp. 755~57.

대다수의 품성을 개량하고 인구의 억제에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기업 활동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공정한 競爭秩序의 확립 및 富(특히 토지)의 세습차단 등 私有財産制度의 문제점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면, 그리고 소비자 교육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가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러한 기회균등이 보장된 사회에서 부와 소득의 불균형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정상상태의 실현을 위하여 영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집약하였다. 그 하나는 議會制度의 改革으로서 귀족에 의한 세습적 과두정치 질서를 시민적 自由主義 정치체제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는 최대 다수에게 정부의 선택 또는 거부권을 부여함으로써 계급입법을 예방하고, 치자와 피치자간 이익의 일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정권의 확대와 보통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올바른 대안이다. 또 하나는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富와 所得 不均衡을 개선함으로써 최대다수를 사회진보의 수혜자 및 동반자로 수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그는 노사관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세제개혁을 통한 富의 세습 예방, 경쟁제한적인 각종 規制와 관습의 극복, 국가간 자유무역의 증진과 해외투자기회의 확대 등을 위한 制度改革에 政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현존하는 資本主義에 대한 社會主義者들의 비판에 대한 그의 반론이다. 그는 사회발전단계로 볼 때 그 당시로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私有財産制度和 경쟁질서의 실험은 아직까지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존하는 資本主義의 부정적 측면만을 공상적인 共產主義의 상태와 비교·비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다.²⁹⁾ 그는 현존하는 부의 추구가사회구성원간의 협력의 분출구로 활용되는 것이 전쟁에 악용되는 것보다 훨씬 소망스러우며, 더욱이 사회주의하에서 개개인의 활동이 획일적으로 통제되는 것보다 우월하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사회주의는 그 자체의 획일성으로 인하여 사회진보의 동인인 개인의 자유와 창의, 그리고 개성을 말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반사회적이며, 따라서 거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³⁰⁾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경쟁질서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

29)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pp. 207~209, 794~796.

30) Mill, 『自由論』, 李克燾(譯), 三星出版社, 1983, pp. 205~379.

하여 社會主義者들이 제기한 비판에 그가 대응한 반론이다. 그는 경쟁이 동업자간의 질서와 적의 등 고유의 병폐를 야기한다. 그러나 경쟁은 보다 더 큰 병폐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인류는 생래의 나태성, 소극성 및 관습의 노예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競爭의 결여는 독과점을 의미하며 독과점은 이익집단의 지대추구를 촉진할 뿐이 아닌가? 경쟁은 진보에의 자극으로서 최량은 아닐지라도 현재로써는 가장 필요한 자극이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競爭이 불필요한 시기는 예상할 수 없다. 인류의 경제적 상황을 크게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증가하는 인구의 부양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것은 私有財産制度의 개선과 기업가의 개척자적 정신이며 이는 競爭 없이는 자극될 수 없다고 그는 확신하였다.³¹⁾

이상을 종합해 보면 그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개개인의 독창성과 다양한 개성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최대한 북돋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自由와 自律性이 보장되어야 하며, 따라서 체제와 제도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개개인의 自由의 신장과 자율에 두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물론 체제와 제도가 자유와 자율, 그리고 사회발전을 보장해 주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더구나 인류의 역사는 특정체제와 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억압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입증해 주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Mill의 자유주의사상을 통해서 한 사회가 진보하기 위한 제도개혁의 기본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한 國家의 價値는 궁극적으로 그 國家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價値이다. 국민을 위촉시켜 그들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國家는 비록 그것이 國民의 利益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소인들로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활력의 결여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³²⁾

이렇게 볼 때 政治經濟學에 함축된 그의 사회진보와 인류복지관은 단순한 경제 사상의 범주를 초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Mill의 학문적 노력과 사회참여는 초치일관 가난한 계층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도덕적 자질의 함양, 즉 人間中心思想의 실현에 있었으며, 그는 바로 이것이 사회과학의 탐

31)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Book IV, Ch. II, §7, London: J.M. Dent and Sons, Ltd., 1972, pp.65~170.

32) Mill, 『自由論』, 李克燦(譯), 三星出版社, 1983, pp.378~379.

구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³³⁾ 따라서 그의 사회진보론과 인류 복지관은 그의 사상체계를 관류하는 인류애와 박애정신 및 자유주의적 맥락에서 파악할 때만이 진정한 이해가 가능하며 보다 값진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VIII. 結 論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경제는 經濟成長至上主義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압축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국민경제는 국내외의 급격한 여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안으로는 富와 所得分配의 불균형에 대한 시정의 요구와 경제활동의 자율화, 그리고 밖으로는 국제화와 개방화 등의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 시대적 과제에 직면한 우리 사회는 이제 경제성장만 지속되면 市民革命과 정치적 자유화도 순조롭게 달성되리라는 안이한 자세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 선진국의 경험은 진정한 시민혁명의 수행이 수반되지 않는 한 市場經濟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자생적 발전도 한계에 직면하리란 역사적 교훈을 시사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출발하였으며, 특히 영국사회의 근대화란 시대적 과제를 안고 평생동안 변민하고 헌신한 Mill의 사회진보사상을 조명함으로써 향후 국민경제의 진로모색에 약간의 교훈을 얻고자 함이다. 그러면 Mill의 경제 진보사상과 그 정책대안이 향후 한국경제의 진로 모색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것은 경제발전을 어떠한 시각과 맥락에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한 사회의 경제발전은 長期的, 動態的 및 歷史的 전개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발전도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규범과 문화, 그리고 市場과 政府간의 分業과 協業體系를 통일적으로 접근할 때만이 올바른 문제의식과 정책대안의 모색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Mill의 사상이 향후 국민경제의 진로모색에 시사하는 바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유추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제발전을 포함한 국가정책이란 환경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자기조정

33) Mill, *Autobiography*, p. 199 및 Stephen (1900), pp. 242~43.

행위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198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국내정치와 경제질서의 변화, 그 중에서도 政治的 民主化와 사회구성원의 욕구체계 및 가치관이 크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와 도전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상되는 국민적 과제를 올바로 파악,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의 모색이 전제될 때 우리 사회의 진보도 촉진될 것이다. 특히 정치·경제 및 문화의 개방화와 국제화의 가속, 기술혁신, 그리고 國際分業構造의 재편은 국내 산업구조의 자생적 조정과 市場經濟 질서로의 이행을 불가피하게 한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를 감안할 때 권위주의적 통제하에 우리 사회가 추구해 온 불균형적 압축성장 정책은 100년 이상에 걸쳐 성취한 선진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불과 30~40년으로 단축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성과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구해 온 압축성장의 전략은 다른 한편으로 국민경제의 비능률과 불공정을 누적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창의 그리고 자조정신의 발현을 저해함으로써 자생적인 성장잠재력의 배양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政治的 民主化와 開放化에 부응하는 市場經濟, 자생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오늘날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여기에서는 시장질서의 창달에 전제되어야 할 기본질서의 확립과 경제제도의 개혁, 그리고 이러한 기본질서의 확립과 제도의 개혁은 정부가 선도해야 한다는 관점에 Mill의 사상이 시사하는 것 중 몇 가지를 논의하기로 한다.

市場秩序에 기초한 自生的 國民經濟의 발전과 이를 위한 정책운용은 정치적 편의주의와 이익집단의 영향을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으로부터 출발해야 함을 Mill의 사상은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경제발전은 경제규모의 지속적 증대와 고른 소득분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최소한 다음의 경제제도에 관한 政治的 中立性의 보장과 이러한 제도의 전문성 제고에 정책의 우선을 두어야 한다.

국민경제 전반의 效率性提高와 고른 所得分配의 실현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조건중 하나가 바로 財政民主主義의 정착이다. 財政民主主義란 재정운용에 있어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아닌 原則의 지배와 政府政策의 일관성 및 합목적성을 의미한다. 이는 올바른 의회제도의 기능을 정립함으로써만이 실현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選舉制度和 政黨制度의 改革은 물론 의회기능의 활성화와 전문성의 제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는 직능대표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연구·조사기능의 제고를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고 예산수립기능을 국회로 이관함으로써 예산의 수립과 심의, 그리고 결산과정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정치적 편의주의와 낭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정부실패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민간부문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 중 하나가 바로 中央銀行의 獨立性 보장과 金融部門의 自律性 확보이다. 왜냐하면 관료기구에 의한 금융시장의 통제는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정보의 전달기구인 상대가격 체계를 왜곡함으로써 이익집단의 지대추구를 조장하고, 생산적 투자와 기술혁신의 유인을 저해해 왔기 때문이다. 관리통화제도하에서 통화정책의 기강과 물가안정, 그리고 金融自律化와 國際化 등 금융제도의 개혁은 최소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전문성이 제고될 때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보장과 전문성의 제고 없인 市場經濟의 창달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독립시킴으로써 獨寡占的 市場構造와 經濟力 集中의 완화 등을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접근하며, 이러한 개혁과정에 대한 정치적 이해타산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도 독립적인 기관의 책임하에 제도적으로 추진하는것이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본다.

현행 土地制度는 국민경제의 자생적 발전에 최대 걸림돌 중의 하나임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土地는 부당한 이윤추구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토지보유로 인한 자본이득의 사회환원과 토지상속 등을 통한 부의 세습을 배제하는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기업의 토지보유를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구분함으로써 오히려 토지보유 유인을 조장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조세적 접근으로써 토지보유의 유인 역제가 미흡하다면 土地의 財產權 구조—소유, 이용 및 처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土地制度의 사회적 의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즉 農村과 都市問題, 환경, 교육, 주거, 사회간접자본, 그리고 雇傭 등을 고려한 지역 및 국토의 균형발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는 市場經濟를 창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하다.

마지막으로 教育制度의 개혁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여건을 제도적으로

조성하는 일이다. 현행 敎育制度는 시민사회의 창달을 위한 규범敎育을 불가능하게하며, 또한 입시제도의 부정적 효과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누적 등은 자생적 사회발전의 최대 장애요인임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敎育制度는 사회의 自律化, 開放化, 그리고 國際化에 부합되도록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며 이러한 개혁 대안에는 시장적 접근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개방화와 국제화는 더 이상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 경제발전은 모든 국민의 생활수준은 물론 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의 가치관과 행동양태가 합리화되고, 나아가서 法과 制度가 합리적, 민주적으로 운용됨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개성의 추구하고 자아실현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法과 制度의 의의는 이러한 사회규범과 시민사회의 발전에 봉사하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무릇 국민경제의 자생적 발전은 간접적으로(시장기구) 추구되어야하며, 이는 개인의 창의, 혁신, 근검, 절약정신을 최대한 북돋우고 유발하는 제도적 여건의 조성을 전제로 함을 첨언코자 한다.

參 考 文 獻

1. 金宗炫, 『近代經濟史』, 經文社, 1984.
2. Ekelund, R.B., Jr., and R.F. Herbert F., *A History of Economic Theory and Method*, 2nd ed, McGraw-Hill Book Co., 1990.
3. Mathias, *The First Industrial Nation: A Economic History of Britain, 1700~1914*, 2nd ed, London and New York: Methuen Co., Ltd., 1986.
4. Mill, J.S., *Autobiography of John Stuart Mill*, with a Preface by John Jacob Cos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24.
5. _____,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with Some of Their Applications to Social Philosophy, V.W. Bladen and J.M. Robson (eds.), 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1965.
6. _____, *A System of Logic: Ratiocinative and Inductive*,

- 1843, *Collected Works of J.S. Mill*, Vol. 7~8,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4.
7. _____, 『功利主義論』, 李淳容·權泰一(共譯), 『世界思想大全集』, 第28卷, 대영사, 1972.
 8. _____, 『代議政治論』, 李淳容·權泰一(共譯), 『世界思想大全集』, 第28卷, 대영사, 1972.
 9. _____, 『自由論』, 李克燦(譯), 三星出版社, 1983.
 10. Rowstow, W.W., *Theorists of Economic Growth from David Hume to the Present, with a Perspective on the Next Century*, New York and Oxford : Oxford Univ. Press, 1990.
 11. Schapiro, J.S., "John Stuart Mill, Pioneer of Democratic Liberalism in England,"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4, April 1943, pp.127~60, also in J. Wood, (ed.), *John Stuart Mill : Critical Assessments*, London : Croom Helm, Vol.1, 1987, pp.78~103.
 12. Schumpeter, J.A., *History of Economic Analyses*,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1954.
 13. Stephen, L., *The English Utilitarians*, Vol.3, 1900, Reprints of Economic Classics, New York : Augustus M. Kelley, 1968.